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2024.10.15(화) 14:00  
협 의 회 회 의 실

# 멕시코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회의 자료



# 목 차

|                 |       |   |
|-----------------|-------|---|
| <b>1. 회의 개요</b> | ----- | 5 |
|-----------------|-------|---|

## **2. 멕시코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멕시코 교류도시 추천 및 교류 추진 방향 ----- 7
- 멕시코 국제교류 정보 ----- 39



# 1 회의 개요

## □ 개요

- 일 시 : 2024. 10. 15(화) 14:00~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자체 : 국제교류 담당자 등(경남도청)
  - 멘 토
    - 문남권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상일 前대사(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 RODRIGO ALFONSO MORALES LÓPEZ 교수(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 협의회 : 국제교류부장, 담당자

## □ 회의내용

- 멕시코 교류 관련 국가 특성 및 협력 전략 등
- 멕시코 교류 관련 질의·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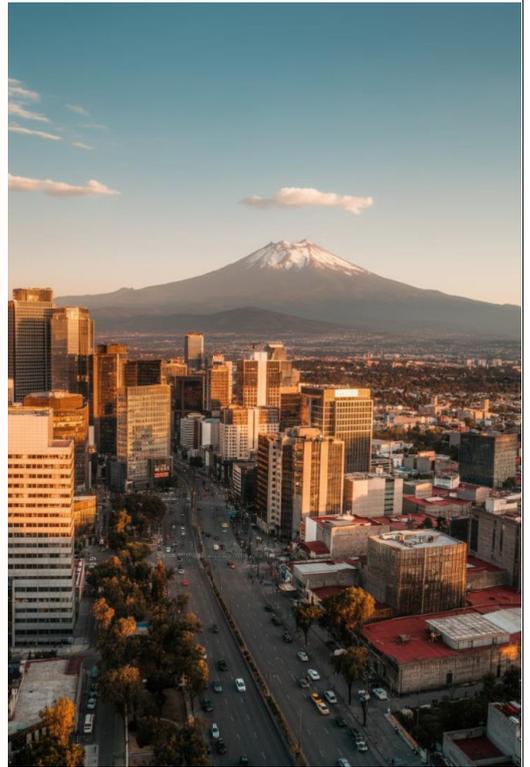
## □ 진행순서

| 시 간         | 진 행 내 용 | 비 고                               |                          |
|-------------|---------|-----------------------------------|--------------------------|
| 14:00~14:10 | '10     | 회의 순서 및 참석자 소개                    | 국제교류부장                   |
| 14:10~15:35 | '25     | 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br>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 문남권 교수<br>(한국외국어대학교)     |
| 14:35~15:00 | '25     | 국제교류 정보 안내,<br>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 김상일 前대사<br>(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
| 15:00~16:00 | '60     | 지자체 질의, 응답                        | 전체 참가자                   |

## 2 멕시코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경상남도-멕시코 국제교류

2024.10.15



## 목차

- I. 멕시코 개요
- II. 멕시코 관광산업 현황과 경쟁력
- III. 키타나로오주 개요
- IV. 칸쿤의 개발 및 관광산업 현황
- V. 경상남도 남해안관광개발과 키타나루주 관광산업 국제교류 분석



## 멕시코의 행정 구역과 인구

### 1 32개 주(Estados)

멕시코는 32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입니다. 각 주는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멕시코 시티(Ciudad de México)

수도인 멕시코 시티는 특별 구역으로 주와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 3 인구 분포

총 인구는 약 1억 2,800만 명으로, 주로 중부와 남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4 대도시권

멕시코 시티 대도시권에만 약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

### 경제 규모

GDP: 약 1.5조 달러 (2023년 기준)

세계 경제 규모 15~16위권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 1인당 GDP

약 1만 2,500달러 (2023년 기준)

중간소득 국가로 분류

### 소득 수준

중상위 소득국가

빈부격차가 큰 편

빈곤율: 약 40% 이상 (2022년 기준)

## 멕시코의 주요 산업

### 제조업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 생산이 활발합니다.

### 석유 산업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가 석유 채굴 및 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광업

카리브해의 휴양지와 대도시들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습니다.

### 농업

옥수수, 커피, 아보카도 등의 농산물 생산이 활발합니다.



## 멕시코의 무역과 국제 관계

1

### NAFTA와 USMCA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그 후속 협정인 USMCA에 의해 미국, 캐나다와의 무역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

### 주요 수출품

멕시코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자기기, 원유 등이 포함됩니다.

3

###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멕시코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국경을 통해 많은 노동력과 물자가 이동합니다.



## 멕시코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

### 지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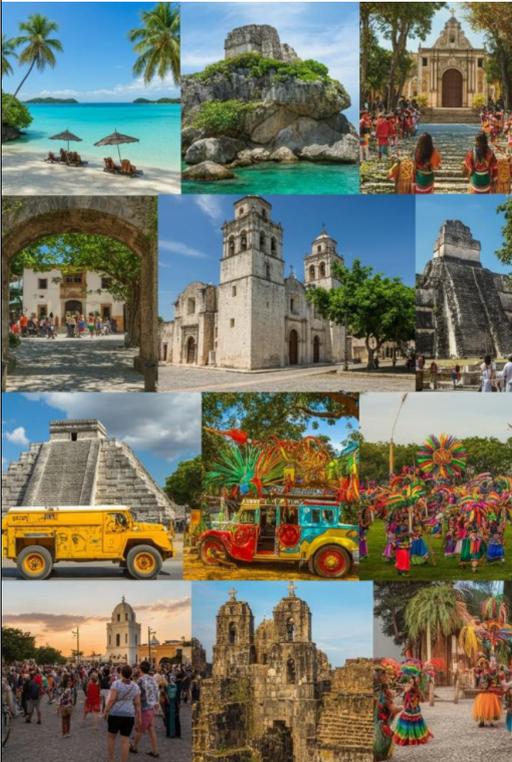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위치하여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 문화적 다양성

멕시코는 고대 문명의 유산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적 연결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북미 경제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II. 멕시코 관광산업

### 1 세계적 인기 여행지

멕시코는 역사적 유적지, 자연 경관, 문화적 다양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 2 라틴 아메리카 최대 관광 시장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3 다양한 관광 자원

칸쿤, 로스 카보스,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등 주요 관광지와 마야 유적지,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축제와 전통 문화가 관광객을 끌어들이습니다.



## 국제 관광객 수

| 연도         | 관광객 수           |
|------------|-----------------|
| 2022년      | 약 3,800만 명      |
| 주요 방문국     |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 |
| 미국인 관광객 비율 | 전체 방문객의 60% 이상  |

## 국가별 관광객 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관광객 수가 줄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과 최근 자료를 비교해 주요 관광 국가의 관광객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90M**

프랑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을 찾은 관광객 수 (2019년)

**83M**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을 방문한 관광객 수 (2019년)

**79M**

미국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이 인기 관광 도시이며, 2019년 방문객 수

**65M**

중국

만리장성 등 유명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유치한 관광객 수

**63M**

이탈리아

로마, 베니스 등을 찾은 관광객 수 (2019년)

**51M**

터키

2019년 유치한 관광객 수

**45M**

멕시코

카리브해 해변 리조트와 역사 유적지가 인기이며, 2019년 방문객 수

## 지리적 이점

1

### 북미 시장 접근성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북미 시장에서 큰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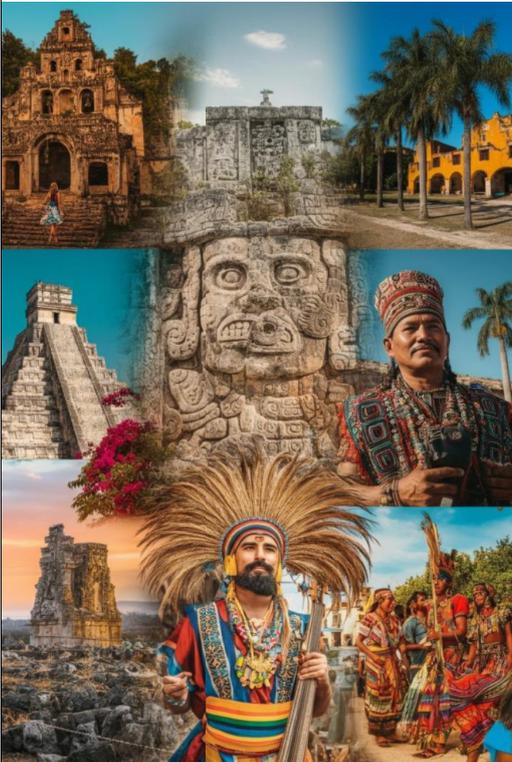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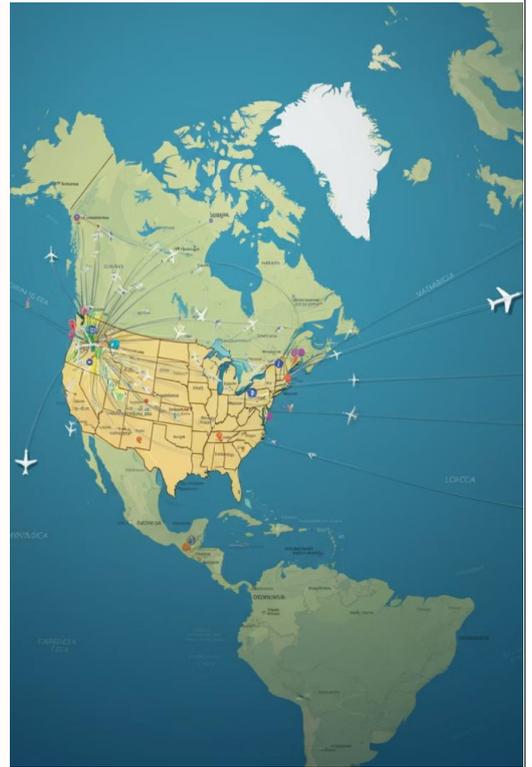
### 저렴한 항공료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항공료가 저렴합니다.

3

### 짧은 이동 시간

북미에서 멕시코로의 이동 시간이 짧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됩니다.



## 풍부한 문화와 자연 자원



### 마야 문명 유적지

치첸이트사, 툴룸 등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 스페인 식민지 건축물

멕시코 시티, 과나후아토 등의 도시에는 아름다운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



### 아름다운 해변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해변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 다양한 문화적 축제

죽은 자의 날 등 독특한 문화 축제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니다.

## 관광 인프라

### 1 세계적 수준의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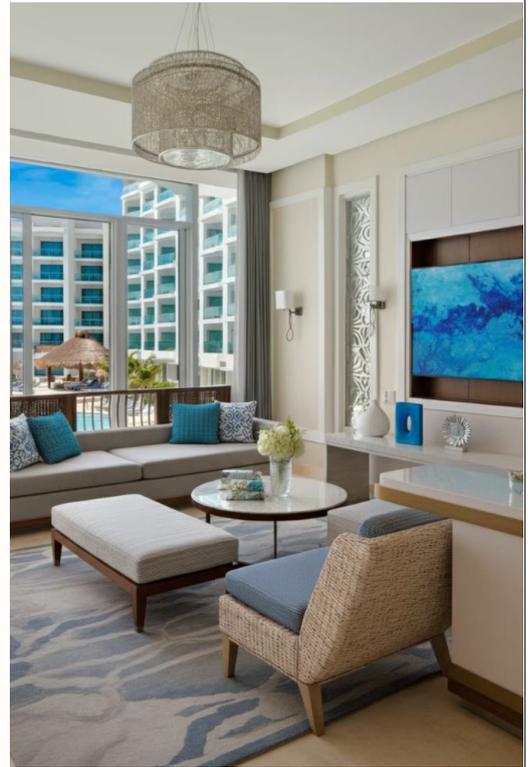
칸쿤, 로스 카보스와 같은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리조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 2 발달된 교통 시설

주요 관광지는 현대적인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 3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멕시코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가격 경쟁력

### 저렴한 여행 비용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 비용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 북미와 유럽 관광객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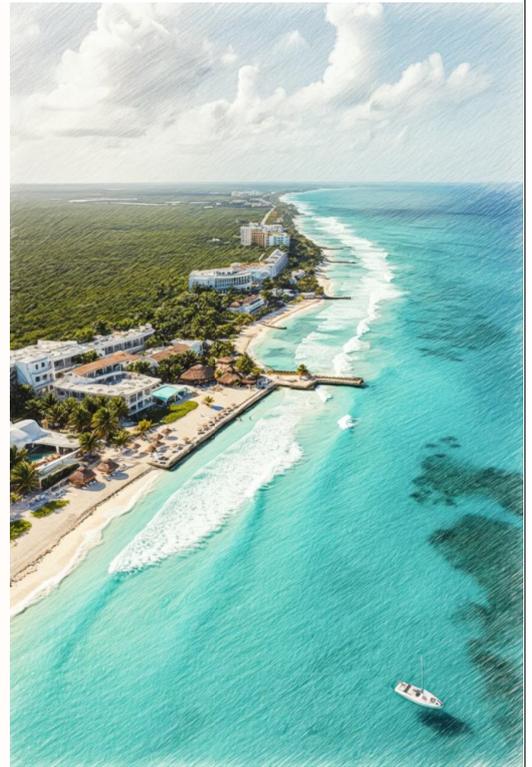
다른 주요 관광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북미와 유럽 관광객에게 매력적입니다.

### 다양한 가격대 옵션

고급 리조트부터 저렴한 호텔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 옵션을 제공합니다.

### III. 멕시코의 보석, 키타나로오주

키타나로오주는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칸쿤과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투명한 바다와 백사장, 그리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 지역은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멕시코의 주요 관광 중심지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동쪽 끝에 자리잡은 키타나로오주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매력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 키타나로오주의 지리와 주요 도시

- 1 **지리적 위치**  
멕시코 유카탄 반도 동쪽 끝에 위치
- 2 **인접 지역**  
서쪽으로 유카탄주, 남서쪽으로 캄페체주, 남쪽으로 벨리즈와 국경 접함
- 3 **주요 도시**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 코수멜 섬, 톨룸, 체투말(주도)
- 4 **주도**  
체투말 - 정치적 중심지이자 벨리즈와 가까운 국경도시



## 세계적인 관광지, 칸쿤

### 아름다운 해변

칸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 휴양지로, 눈부신 백사장과 투명한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가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 고급 숙박시설

수많은 고급 호텔과 리조트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휴양 경험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액티비티

해양 스포츠, 수영, 일광욕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 킨타나로오의 다른 주요 관광지



### 플라야 델 카르멘

칸쿤 남쪽의 해변 도시로, 보헤미안 분위기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합니다.



### 톨툼

해변에 위치한 고대 마야 유적지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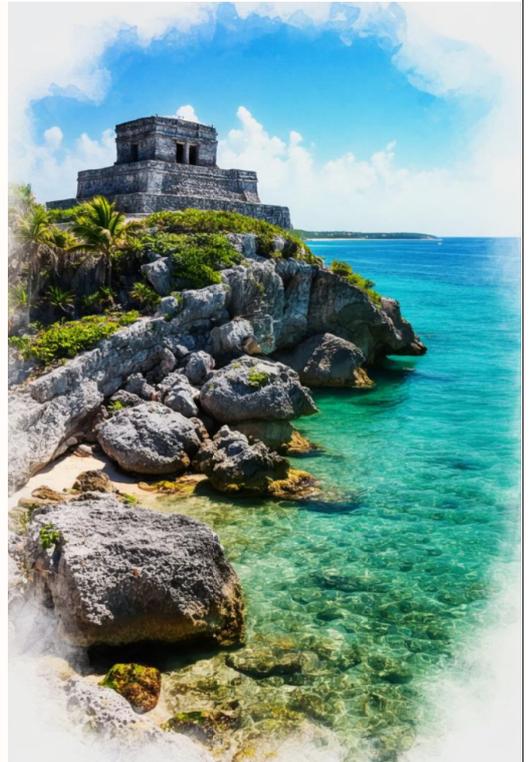
### 코수멜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 명소로 유명한 섬입니다.



### 치첸 이차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마야 문명의 고대 도시입니다.





## 킨타나로오의 문화와 역사

- 1 — 고대 마야 문명  
킨타나로오주는 고대 마야 문명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툴룸과 코바 같은 유명한 마야 유적지가 주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 2 — 개발 이전 시기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은 개발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 3 — 관광지 개발  
1970년대에 칸쿤을 개발하면서 키타나로오주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 4 — 현재  
오늘날 키타나로오주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 킨타나로오의 경제

### 관광업

킨타나로오의 경제는 주로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 코수멜 등은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 국제적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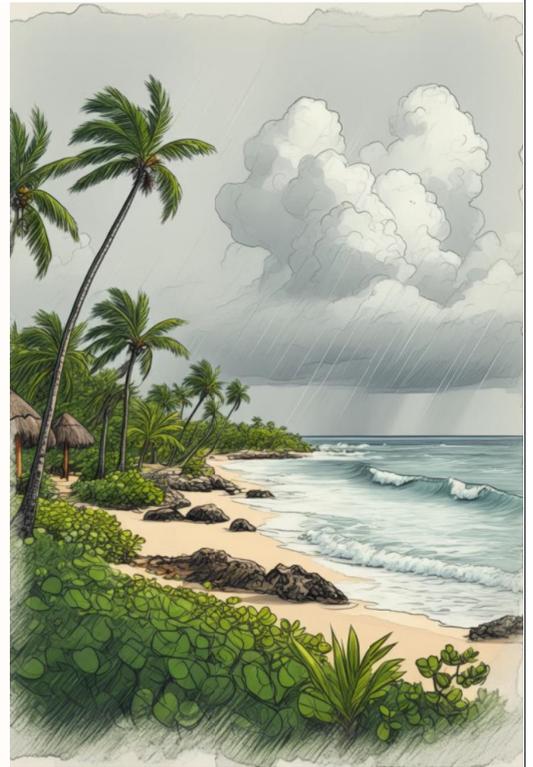
주 내 여러 도시와 관광지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 기타 산업

수산업 및 농업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광업에 비해 규모는 적습니다.

## 킨타나로오의 기후

|        |                 |
|--------|-----------------|
| 기후 유형  | 열대 기후           |
| 연중 기온  | 따뜻함             |
| 우기     | 6월~10월          |
| 건기     | 11월~5월          |
| 우기 특징  | 강수량 많음, 허리케인 위험 |
| 관광 최적기 | 건기 (11월~5월)     |



## 킨타나로오의 교통



1

### 칸쿤 국제공항

킨타나로오주 내 최대 공항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국제적인 관광객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합니다.

2

### 도로 교통

칸쿤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주요 관광지 간 이동이 편리합니다.

3

### 해상 교통

코수멜 섬 등 주변 섬으로의 페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섬 관광도 용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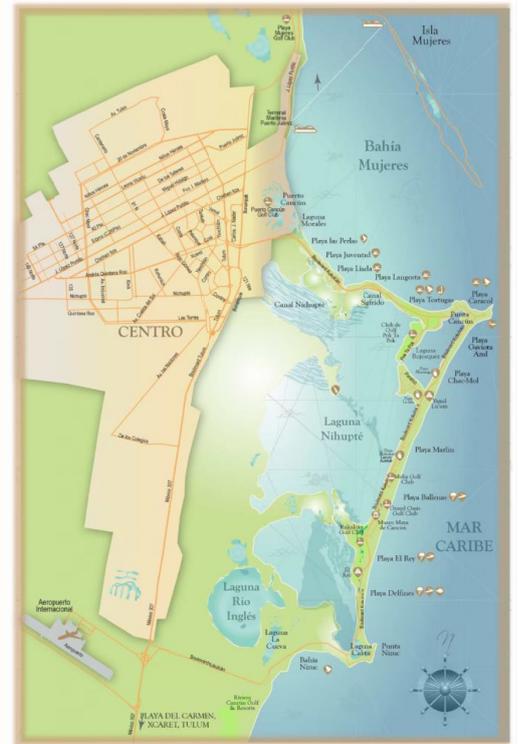


## IV. 칸쿤의 개발과 변신

50년 전 칸쿤은 1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칸쿤은 멕시코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의 결과였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관광 산업 육성 정책과 칸쿤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나 세계적인 휴양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칸쿤 선정 과정

- 1 — 1960년대 후반  
멕시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부문 개발에 관심을 가짐
- 2 — 데이터 분석  
성공적인 리조트 지역의 통계를 수집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 3 — 현장 조사  
컴퓨터가 선정한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건 검토
- 4 — 칸쿤 선정  
좋은 날씨, 아름다운 해변, 고고학적 유적지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칸쿤의 장점



### 자연환경

연중 좋은 날씨,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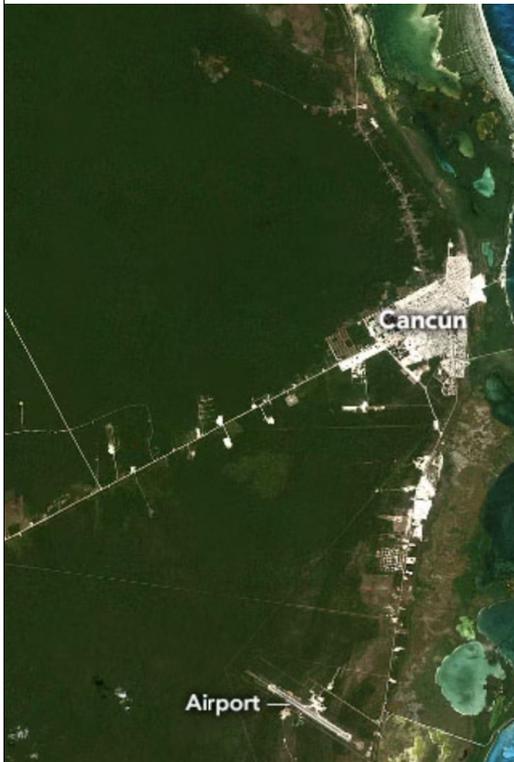
### 문화유산

치첸이차와 톨룸의 마야 유적지 근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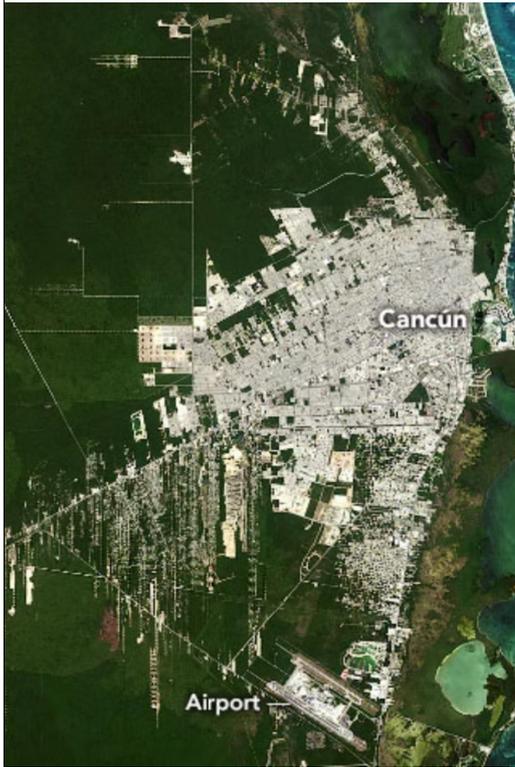
### 개발 여건

높은 빈곤 수준, 기존 산업 부재로 개발 용이



## 칸쿤의 초기 개발

- 1 — 1970년 1월  
기술자들이 도착하여 리조트 타운 건설 시작
- 2 — 1974년 9월  
칸쿤의 첫 호텔 개장
- 3 — 1975년  
더 많은 호텔 추가, 약 10만 명의 관광객 방문



## 칸쿤의 성장

### 1 관광객 증가

현재 연간 약 200만 명의 방문객 수용

### 2 경제 기여

국가 관광 수입의 약 4분의 1 창출

### 3 인구 증가

1980년대 후반 120,000명에서 2015년 약 740,000명으로 증가

### 4 호텔 존 발전

27km 길이의 해변을 따라 대부분의 호텔 위치

## 위성 이미지로 본 칸쿤의 변화

1

1985년 3월 28일

Landsat 5의 Thematic Mapper (TM)로 촬영한 초기 칸쿤의 모습

2

도시 확장

34년간 급격한 도시화와 인프라 발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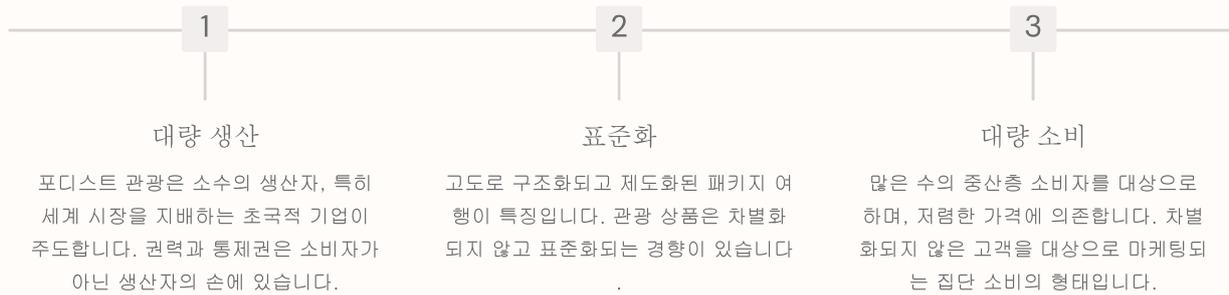
2019년 4월 11일

Landsat 8의 Operational Land Imager (OLI)로 촬영한 현대 칸쿤의 모습





## 포디스트 대량 생산 및 소비



## 칸쿤의 포드주의적 특성

- 1 대규모 리조트**  
고층, 올인클루시브형 대규모 관광 리조트가 주를 이룹니다.
- 2 표준화된 상품**  
'태양과 모래' 중심의 표준화된 관광 상품을 제공합니다.
- 3 대량 관광**  
매년 2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량 관광지입니다.
- 4 패키지 투어**  
할인된 패키지 투어를 통해 중산층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대규모 호텔 집중

칸쿤의 125개 호텔 중 71%가 14km의 호텔 구역에 위치

## 객실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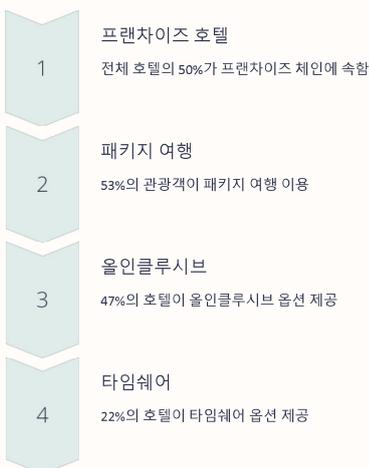
전체 객실의 90%가 호텔 구역에 집중

## 대형 호텔 선호

평균 객실 수 177개, 최고급 호텔은 평균 376개 객실 보유

칸쿤은 규모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대규모 '럭셔리' 호텔이 주를 이룹니다. 호텔과 객실이 공간적으로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집단적인 대량 소비를 나타냅니다. 호텔의 규모가 크고 고급 호텔이 많은 것도 포디스트 대중 관광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집중은 FONATUR의 원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표준화된 관광 상품: 프랜차이즈와 패키지 투어



칸쿤의 관광 상품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호텔이 많고, 패키지 여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와 타임쉐어 옵션의 증가는 표준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포디스트 관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관광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된 상품들도 점차 다양화되고 유연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포스트 포디스트 관광의 등장: 다양성과 유연성

- 1 — 패키지 다양화  
유연한 패키지 상품 증가, 개별 활동 선택 가능
- 2 — 문화 관광 성장  
고고학 유적지 방문 증가, 마야 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
- 3 — 생태 관광 발전  
환경 친화적 관광 상품 등장, 자연 보호 구역 방문 증가
- 4 — 개별화된 경험  
맞춤형 여행 상품 수요 증가, 다양한 활동 옵션 제공

칸쿤에서는 포스트 포디스트 관광의 특징인 다양성과 유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더 유연해지고 개별화되며, 문화 관광과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여행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 관광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칸쿤 관광의 포디스트 스펙트럼 분석

| 포디스트 요소          | 포스트 포디스트 요소 | 신포디스트 요소      |
|------------------|-------------|---------------|
| 대규모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 생태 관광 프로그램  | 맞춤형 패키지 투어    |
| 표준화된 '태양과 모래' 상품 | 문화 체험 프로그램  | 기술 기반 개인화 서비스 |
| 대량 패키지 투어        | 모험 관광 상품    | 유연한 올인클루시브 옵션 |

## 리비에라 마야의 발전

### 다양한 숙박 시설

고층, 올인클루시브형 대규모 리조트부터 소박한 '친환경'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합니다.

### 문화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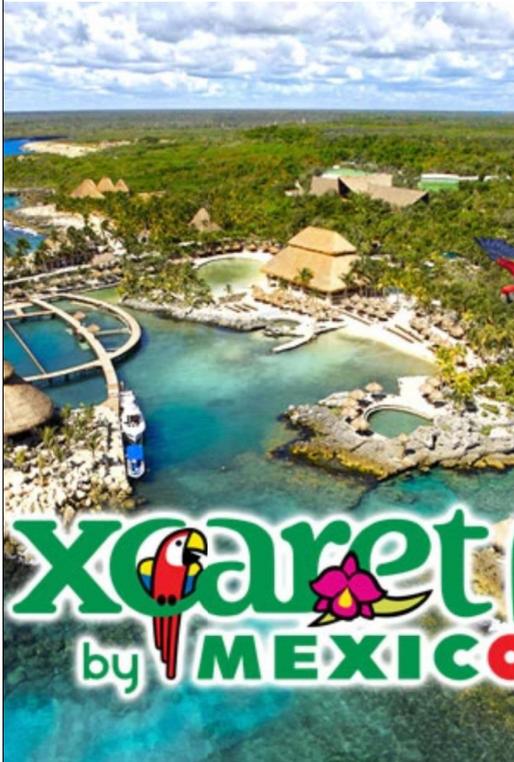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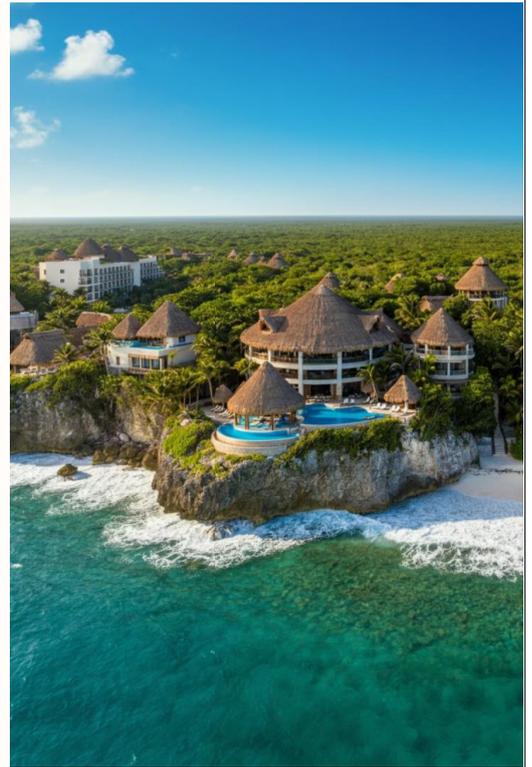
마야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 생태 관광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테마파크

'엑스카렛'과 같은 생태 고고학 테마파크를 개발합니다.



## 엑스카렛: 포스트 포디스트 관광의 예

### 생태 고고학 디즈니랜드

엑스카렛은 생태 관광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테마파크입니다. 대중 관광객을 위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유카탄 반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활동

마야 문화 체험, 수중 동굴 탐험, 해양 생물 관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양과 모래' 관광에서 벗어나 더 풍부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 상품화와 진정성

엑스카렛은 유카탄의 자연과 문화를 대중 관광객 소비를 위해 포장한 상품화의 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교육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진정성과 상업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킨타나로오 남부 지역의 대안 관광

- 1 시안 카안 생물권 보호구역  
비영리 단체 '시안 카안의 친구들'이 제공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 2 저밀도 생태 관광  
엑스칼렛과 같은 독특한 해안 생태계에서 저밀도 생태 관광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 3 지역 통합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부 지역과 칸쿤 및 리비에라 마야의 관광 통합을 개선하려 합니다.
- 4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 보존과 관광 개발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개발합니다.



## 문도 마야 프로젝트

- 1 프로젝트 개념  
5개 마야 국가(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문화 지향적인 관광을 장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2 목표  
마야 문화와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관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 3 실행 과정  
실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전체의 관광 다각화와 통합에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칸쿤의 '포스트 관광객'

### 다양한 경험 추구

'포스트 관광객'은 전통적인 해변 휴양과 함께 문화 체험, 생태 관광 등 다양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 진정성과 키치의 공존

연출된 체험과 고도로 상품화된 공간을 수용하면서도 '진정성'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 유연한 일정

엄격한 패키지 투어보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일정을 선호합니다.

### 기술 활용

소셜 미디어, 앱 등 기술을 활용해 여행을 계획하고 경험을 공유합니다.



## 칸쿤 관광의 미래 전략

### 1 스마트 관광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VR/AR 기술을 활용한 관광 경험 확대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합니다.

### 2 지속가능성 강화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제로 웨이스트 호텔 등 환경 친화적 관광 인프라를 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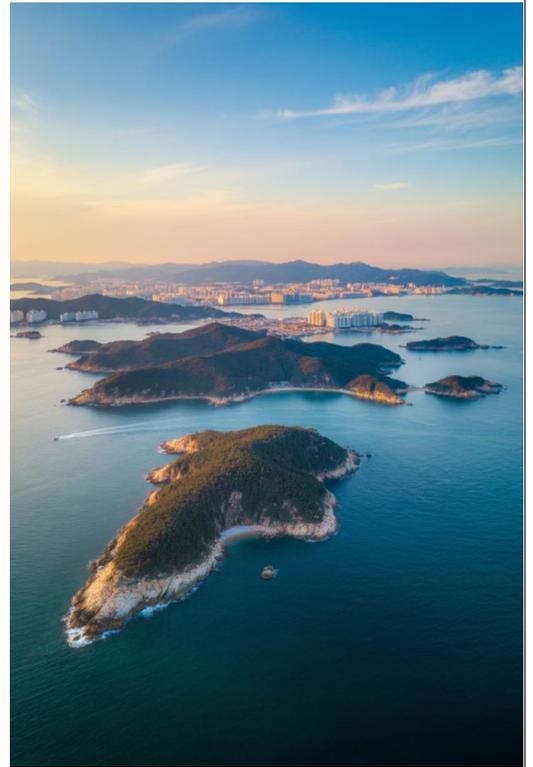
### 3 문화 관광 확대

마야 문화 체험 센터, 현대 멕시코 예술 박물관 등 문화 관광 시설을 확충합니다.

### 4 건강 및 웰빙 관광

의료 관광, 장기 체류형 웰니스 리조트 등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 V.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와 칸쿤 관광산업: 유사점과 차이점



## 경상남도와 킨타나로오주의 관광 산업 비교

## 해안 특성 비교

### 경상남도

남해와 접해 있어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은 편입니다. 남해안의 수심은 20-50m 정도로, 완만한 해안선이 특징입니다. 약 600km의 해안선을 따라 다수의 해변과 섬이 존재하며, 거제도과 남해군 해변 등이 주요 관광지입니다.

### 킨타나로오주

카리브해와 접한 키타나로오주의 해안은 비교적 깊은 바다로 연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심이 깊습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 명소인 코수멜 섬은 깊은 바다로 유명하며, 평균적으로 200-400m 정도의 수심을 보입니다. 약 865km의 해안선을 따라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칸쿤, 플라야델 카르멘, 코수멜 섬 등의 유명 해변이 있습니다.

## 기후 특성

1

### 경상남도 - 온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며(7월 평균기온 약 26°C),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지만 춥습니다(1월 평균기온 약 4°C). 장마철과 태풍으로 인해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2

### 킨타나로오주 - 열대 기후

일년 내내 더운 날씨를 유지하며, 우기와 건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름(6월-10월)에는 고온 다습하고, 허리케인 위험이 존재하지만(7월 평균기온 약 28°C), 겨울(11월-4월)에는 기온이 쾌적하며(1월 평균기온 약 24°C),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 관광 인프라

### 1 경상남도

김해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철도망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러 해양 관광지과 역사, 문화 명소들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호텔, 리조트, 해양 레저 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 2 키타나로오주

칸쿤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호텔,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등 고급 관광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해양 레저와 리조트형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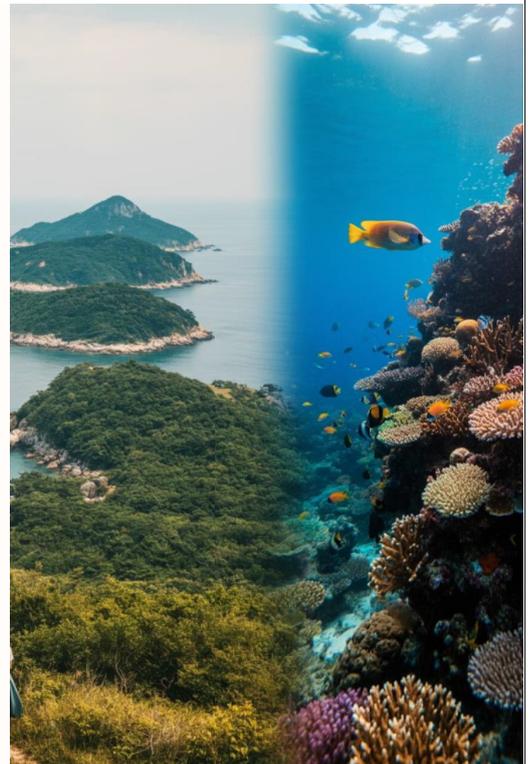
## 생태관광

### 경상남도

섬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이 활발합니다. 남해 해상국립공원과 같은 해안 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 체험과 탐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도해의 섬을 배경으로 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키타나로오주

마야 유적지와 더불어 자연보호구역과 생태 관광지가 풍부합니다. 시안 카안(Sian Ka'an) 생물권 보호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 다이빙과 해양 동물 보호 프로그램 등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험 관광

### 경상남도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전통적인 어촌 체험, 농촌 체험, 그리고 도자기 만들기, 염전 체험 등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체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킨타나로오주

특히 해양 체험 관광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낚시 체험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마야 문명을 탐방하는 역사 체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칸쿤의 리조트 지역은 올인클루시브형 관광 체험이 활발합니다.

## 주요 관광객 특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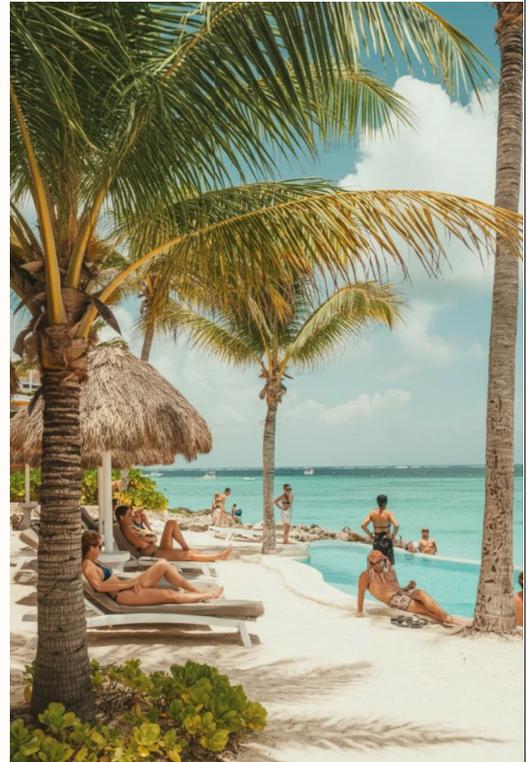
### 경상남도

주로 국내 관광객이 많으며, 특히 여름철 휴가 시즌에 맞춰 경상남도의 해변과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국내 여행객이 증가합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도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

### 킨타나로오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대다수입니다. 휴양 목적의 방문이 많으며, 주로 리조트나 올인클루시브형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 문화적 배경

### 경상남도

한국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동아시아의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 풍부합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 킨타나로오주

고대 마야 문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유카탄 반도 전역에 걸쳐 번성한 마야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마야인들의 건축, 과학, 예술, 종교적 유산이 주요 유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주요 문화유적 - 경상남도

### 1 통도사

신라시대(646년) 창건된 불교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교 전통과 건축 양식을 간직한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 2 해인사

가야산에 위치한 이 사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진주성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진주성은 한국의 독립과 저항의 상징적인 장소로, 성벽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 주요 문화유적 - 키타나로오주

### 1 치첸 이차(Chichén Itzá)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야 유적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엘 카스티요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은 마야인들의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과 종교적 신념을 보여줍니다.

### 2 툴룸(Tulum)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한 고대 마야 도시로, 해안가에 위치한 드문 마야 유적입니다. 툴룸은 고대 마야인들이 해양 교역을 했던 중요한 항구도시였으며, 독특한 건축물과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 3 코바(Cobá)

마야 문명의 고대 도시 중 하나로, 키타나로오주 내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의 교통로 역할을 했던 사크베(Sacbé)라는 도로망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 건축 양식 비교

| 특징      | 경상남도          | 키타나로오주         |
|---------|---------------|----------------|
| 주요 재료   | 나무와 돌         | 석회암            |
| 대표적 건축물 | 사찰, 성곽, 왕릉    | 피라미드, 신전, 궁전   |
| 건축 특징   | 전통 한옥 구조, 곡선미 | 거대한 규모, 정교한 조각 |



## 종교 및 신앙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많은 문화유적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면서 사찰과 불교 유적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와 관련된 서원과 유교적인 건축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킨타나로오주

킨타나로오주의 마야 유적은 주로 다신교적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야인들은 자연 현상과 천체를 숭배하며, 태양신, 비의 신 등 다양한 신을 모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적의 건축물과 벽화, 피라미드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사와 천문 관측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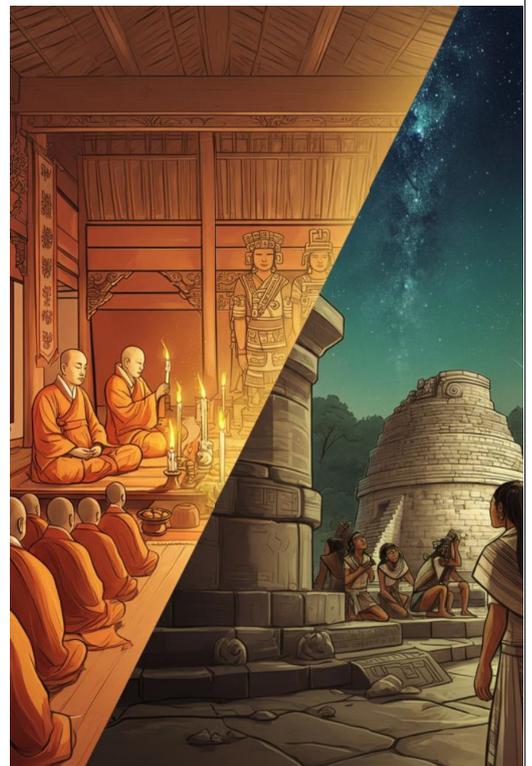
## 문화유적의 기능과 의미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유적들은 주로 종교적,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왕실과 국가의 후원을 받았고, 왕릉과 성곽은 국가 방어 및 왕권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킨타나로오주

킨타나로오주의 마야 유적은 주로 종교적, 천문학적 기능이 강합니다. 마야 피라미드는 제사를 지내고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치첸 이차와 같은 유적은 천체 관측을 위한 건축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1

경상남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수와 복원 작업,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통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킨타나로오주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가 주도하여 마야 유적의 보존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과 유적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와 킨타나로오주의 관광 협력 방안

경상남도(대한민국)와 키타나로오주(멕시코)는 각각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두 지역은 해양 관광과 자연 생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관광 교류 프로그램

##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홍보

두 지역의 관광객이 상호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연경관, 역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전통문화(예: 불교 유적, 전통시장)와 키타나로오주의 마야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관광지를 상호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관광 인프라 개발 벤치마킹

경상남도는 생태 관광과 전통문화 체험 관광이 발달해 있으며, 키타나로오주는 고급 리조트 및 해양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양 지역의 관광 담당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성공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관광 인프라 및 디지털 마케팅 협력

1

## 스마트 관광 기술 협력

전통적인 관광지과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관광(예: 모바일 앱, 가상현실)과 국제 관광객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서 두 지역은 이러한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를 교환하여 스마트 관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

## 공동 온라인 홍보

두 지역이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각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협력하여 글로벌 온라인 관광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 교육 및 인력 교류

### 1 관광 인력 양성 협력

양 지역은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산업 관련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지역의 관광 전문 인력을 상호 교환하여 관광 산업 운영 방식 및 고객 서비스, 언어 교육 등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 2 관광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경상남도과 키타나로오주의 관광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관광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 지역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관광 및 환경 보호 협력

###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경상남도과 키타나로오주는 각각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관광 지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광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성공적인 생태 관광 모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협력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등의 문제는 두 지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과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현대 중남미 경제, 문남권 우제량 역, HUFS Press
- Cancun's tourism development from a Fordist spectrum of analysis, Rebecca Torres, Tourist Studies, 2; 87
- Cancun Tourism Cluster, Q. Roo, México Country Competitiveness Project, LACCEI International Multiconference o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Improving Tourism Competitiveness: The Case of Mexico,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Vol. 3, No. 1
- Tourism Analytics, <https://tourismanalytics.com/cancun-statistics.html>
- 세계 속의 해양관광지로 거듭날 경남형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https://blog.naver.com/gnfeel/223072390169>
- 멕시코 경제부, <https://www.economia.gob.mx/datamexico/en/profile/geo/quintana-roo-qr>
- [www.tradingeconomics.com](http://www.tradingeconomics.com)



# 멕시코 국제교류 멘토링 자료

2024.10.15.(화)

전 주멕시코대사 김상일

## [[파트 I]]

1. 멕시코 개황
2. 멕시코 최근 정세
3. 한-멕시코 관계
4. 미래의 유망한 한-멕시코 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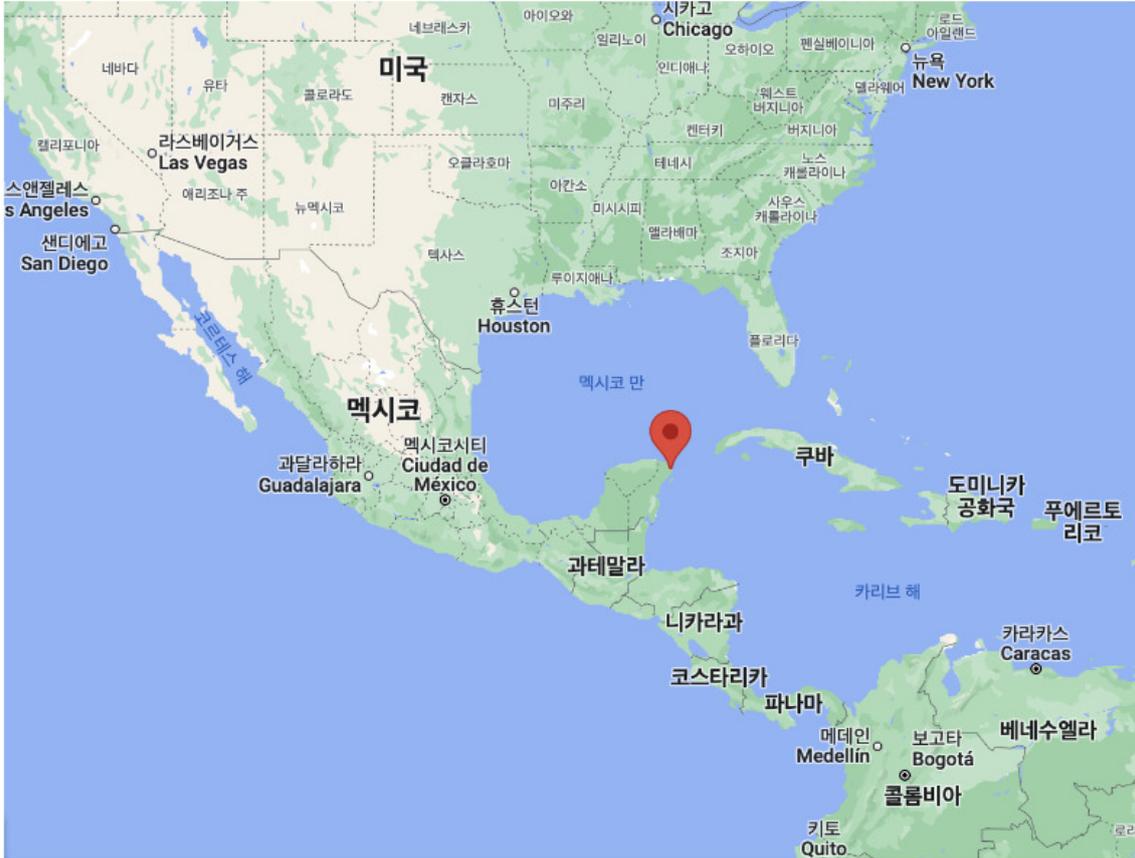
## [[파트 II]]

5. 칸쿤(Cancun) 시 개요 및 경제 현황
6. 현 칸쿤 시장 약력
7. 한국과 칸쿤시 간 협력 현황

## [[파트 III]]

8. 칸쿤시 협력 분야
9. 협력 방법

# 1. 멕시코 개황



**\*\* 멕시코는 자국을 북미국가라고 호칭**

- 지리적으로 북미와 연계되어 있어 **중미 국가**라는 것을 기피
- 예)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무역협정**

• **일반사항**

- **국명** : 멕시코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
  - **수도** : 멕시코시티(Mexico City, 약 2,000만명)
  - **인구** : 1억 3100만명 (2023, IMF)
  - **면적** : 196만km<sup>2</sup> (한반도의 9배, 한국의 약 20배)
  - **종교** : 카톨릭(89%), 개신교(6%), 기타(5%)
  - **민족** : 메스티소(60%), 원주민(30%), 백인(9%)
- \* 메스티소: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인

**디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시작**

• **정치현황**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단임)**
- **주요인사**
  - **전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2018.10.1.취임-2024.09.30.)
  - **신임 대통령 선출: 클라우디아 세인바움**(Claudia Sheinbaum, 2024.10.1.-2030.09.30.)
- **의회구성 : 양원제**  
**상원:128석(임기6년)**  
**하원:500석(임기3년)**
- **국가형태: 연방공화국**
- **독립일:1810.9.16.(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 **경제현황**

- **GDP: 1조 7889억\$ (2023, IMF)**
  - \* **참고로 한국의 2023 GDP는 1조 9956억불**
- **1인당 GDP: 1만 3641\$ (2023, IMF)**
- **경제성장률: 3.2% (2023, IMF)**
- **교역: 교역현황(2023,IMF)**
  - **수출액: 5930억\$**
  - **수입액: 6344억\$**
- **주요자원: 원유, 은, 천연가스, 철광석, 커피**

## 2. 멕시코 최근 정세

1) 최근 대통령 선거 결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Claudia Sheinbaum) 선출(임기: 2024.10.1.-2030.09.30.)

- 친 환경 정책, 기존의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온건한 이민 정책, 공기업(석유공사 페멕스, 연방전력공사 등) 역할 강화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6월 3일 멕시코시티의 조킬로 광장에서 총선 결과가 나오자 기뻐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김상일 주멕시코 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시장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시장 당선자와 만나 우리 동포와 기업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멕시코 시장 당시 에피소드(전기버스, 쓰레기 처리장치) 2018.9.1.연합뉴스**

- 6. 2일 멕시코 국가선관위 발표, 여당인 좌파 성향의 국가재생운동 (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약 60%의 득표율로 우파 성향인 야당 연합의 소치틀 갈베스(약 30%) 후보에 압승

- 세인바움의 압도적인 득표를 원인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중적인 인기도 한몫(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말인 최근까지도 60%대 중반의 지지율 유지)

- 2024.6.2일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탄생, ‘마초의 나라’로 불릴 만큼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뿌리 깊었던 멕시코에서 첫 여성 국가원수 탄생

- 세인바움 후보는 본래 분자생물학자인 어머니와 화학 엔지니어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대인 출신 과학자로 2000년 현 대통령이 멕시코 시장 당시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2011년 현재 여당인 모레나당이 창당할 때 합류. 2018년엔 멕시코시티 최초로 여성 시장이 되어서 2023년까지 역임

2) 신임 대통령의 정책 공약<지역별 집중 육성 산업>

| 구분                  | 해당 주                                 | 집중 육성 산업                           |
|---------------------|--------------------------------------|------------------------------------|
| AIFA<br>(신공항<br>인근) |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히달고                     | 의료 기기 및 화학-제약, 물류, 특수 제조, 서비스, 식음료 |
| Golfo<br>(만)        | 베라크루즈, 타바스코, 치아파스 및 캄페체              | 석유화학, 탄화수소, 목재, 과일 및 수산업           |
| Pacifico<br>(태평양)   | 나야리트, 할리스코, 콜리마, 미초아칸                | 농업, 인더스트리 4.0, 물류 및 관광             |
| Frontera<br>(국경)    | 치와와, 코아후일라, 누에보 레온 및 타마울리파스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농업 산업                 |
| Baja<br>(바하)        | 바하 캘리포니아,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소노라 및 시날로아    | 반도체, 재생 가능 발전, 관광 및 농업             |
| Bajío<br>(바히오)      | 케레타로, 과나후아토, 산 루이스 포토시 및 아과스칼리엔테스    | 자동차, 데이터 센터, 항공 및 관광               |
| Maya<br>(마야)        | 유카탄,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 및 키타나로오(칸쿰시 소재) | 관광, 농업, 재생 에너지, 식음료 및 서비스          |
| Centro<br>(중앙부)     | 게레로, 모렐로스, 푸에블라 및 틀락스칼라              | 섬유, 자동차 및 전기-전자                    |
| Noroeste<br>(동북)    | 소노라, 시날로아, 듀랑고 및 사카테카스               | 광업, 농업 및 발전                        |

[자료: 세인바움 공약집, 2024.3]

### 3. 한국-멕시코 관계

- **외교관계**
  - 1962.01.26. 외교관계 수립
  - 1962.07. 주멕시코 상주대사관 개설
  - 1978.03. 주한멕시코 상주대사관 개설
- **투자현황 :**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2023 누적, 산업부/수은)**  
-한국→멕시코:93억불/멕시코→한국:55백만불  
-기업투자 진출현황:기아, 가전업체(삼성, LG, 위니아), 한국 전력, POSCO 등 430여개
- **교역 : 교역현황(2023, KITA)**
  - **수출액:122억\$**  
-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아연강판, LCD, 냉연강판, 합성수지
  - **수입액:76억\$**  
- 수입품목: 원유, 원동기,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아연광

**교민현황 : 1.6만명(2024.4월)**

#### **주요협정 체결현황**

- 1966.04. 문화협정('69.3월발효)
- 1966.12. 무역협정('69.3)
- 1979.03. 일반사증면제협정('79.4)
- 1988.07. 항공협정('89.11)
- 19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8)
- 1994.10. 이중과세방지협약('95.2)
- 1996.11. 범죄인인도조약('97.12)
- 1997.06.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8)
- 2000.11. 투자보장협정(02.6)
- 2001.06. 항공협정개정및보완협정(03.1)
- 2005.09. 세관분야협력및상호지원협정(06.5)
- 2005.09. 형사사법공조조약(07.1)
- 2012.06. 원자력협력협정

#### **\*북한과의 관계**

- 80.09 멕시코-북한수교

- 93.09 주멕시코 북한대사관 개설(주北상주공관미개설)
- 17.09 주멕시코 북한대사 추방
- 20.03 신임 주멕시코 북한대사 부임



‘멕시코 코레아노’

### ‘한국 이민자의 날’



**\*\* 멕시코 이민 역사: 1905년 약 1,033명이 선인장 농장에 이민, 한인 이민 사회가 멕시코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유카탄 주와 메리다 시와 교섭하여 한국 이민의 날을 지정, 축제 및 시가 행진(2019.5.4.)**

**- 참고로 멕시코 이민자중 일부(약 300명)가 1921년 쿠바로 이주하여 쿠바내 한인사회 건설**



멕시코서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지혜 특파원 =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근교 멕시코 한국대사관저에서 625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멕시코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출범했다. 2021.6.25



- \*\* 멕시코 한국전 참전: 한국전에 참전한 180만 명의 미군 참전용사 중 10%인 18만 명이 히스패닉, 이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로 추정
  -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계 미국인도 있지만 1943~1952년 미국·멕시코간 병역협력협정에 따라 멕시코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군에 입대

#### 4.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유망 분야

##### 1) 자동차 및 전자 산업

- 자동차 산업: 멕시코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멕시코 자체 생산 차량은 전무) 하나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기지 다수 존재
  - 한국의 기아자동차(연간 약 30만대 생산공장 멕시코 소재, 대부분 미국 수출)는 이미 멕시코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래 전기차 생산 및 관련 부품 공급망 협력의 기회 존재
- 전자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양국 간 전자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협력도 증가
  - 멕시코는 NAFTA(최근 USMCA 로 개칭)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

##### 2)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멕시코는 풍부한 태양광, 풍력 자원을 보유,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 다대
  - 한국 전력 투자: 한전은 2019년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총

설비용량 294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건설해 35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던 2021년 멕시코는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과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법 개정, 현재 사업성 악화

- **에너지 인프라:**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 존재
  - 특히 LNG 및 전력 관련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 기회 존재

(가스공사, 멕시코 만사니요 LNG터미널 사업)



- 사업개요 : 멕시코 중서부지역에 발전용 및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
- 위치 : 멕시코 서부 태평양 연안의 콜리마주 만사니요(Manzanillo)
- 발 주 자 : 멕시코 전력청 (CFE)
- 사업방식 : BOO (Build-Own-Operate)
- 공동사업자 : KOGAS(25%), 삼성물산(20%), KB 자산운용(17.5%), Mitsui(37.5%)
- 설비규모 : 150,000㎥저장탱크×2기, 기화송출설비(연 380만톤 처리)
- 사업기간 : 2008년 4월 ~ 2031년 8월(건설 : 2008.4 ~ 2011.8, 운영 : 2012.6 ~ 2031.8)
- KOGAS 역무 : 투자, 건설관리, 터미널 운영

### 3)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 **스마트시티 기술:** 한국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에 앞서 있으며, 멕시코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이러한 기술 적용 기회
  - 교통, 에너지 관리, 안전 시스템 등에서 한국의 기술적 노하우가 멕시코 도시 발전에 기여 가능
- **인프라 개발:** 멕시코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 및 협력 가능

\*\* 삼성엔지니어링 2020.10.30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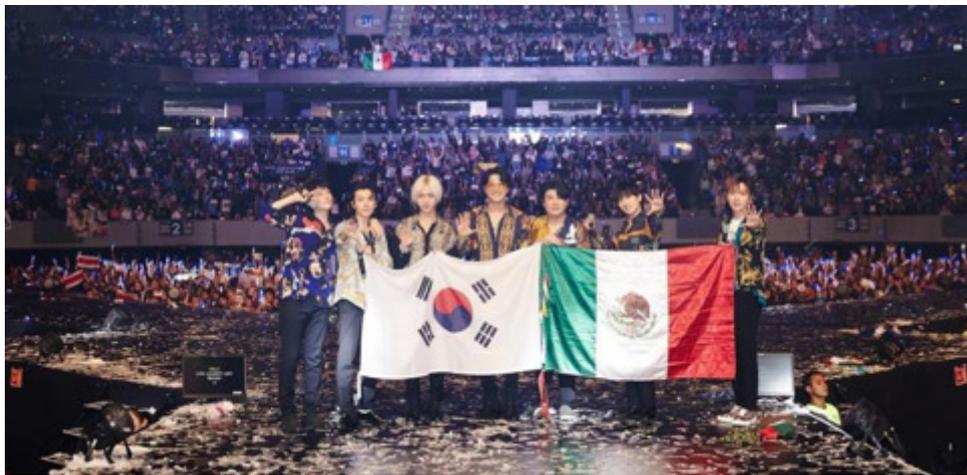
'페멕스'의 자회사를 통해 '도스 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을 수주했다고 발표, 이 프로젝트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타바스코주 도스보카스 지역에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정제설비를 건설하는 사업

4) **정보통신 기술(ICT) 및 5G**

- **5G 및 ICT:** 한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및 ICT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가능
- **스타트업 및 IT 협력:** 멕시코의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IT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스타트업 협력 가능

5) **문화 및 콘텐츠 산업**

- **K-콘텐츠 및 문화 교류:**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멕시코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 전망.
  - 한국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도 멕시코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6) **농업 및 식품 산업**

- **식품 수출입:** 멕시코는 풍부한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농업 및 식품 교역이 증대 전망
  - 특히 멕시코의 아보카도, 망고 등의 농산물 수출과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 노력
- **스마트 농업:**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멕시코에 도입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가능

## 7) 관광산업에서의 협력

- **양국 간 관광 활성화:** K-팝, 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는 멕시코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마케팅 가능
  -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멕시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멕시코의 자연경관, 역사적 유산을 홍보해 한국인 관광객 방문 유도 가능
- **에코 투어리즘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멕시코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면서도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이 중요
  - 한국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친환경 관광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 가능
- **관광 인프라 개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활용해 멕시코의 주요 관광지에 교통, 숙박, 통신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 가능
  -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IT 기술 기반의 관광 시스템을 도입 가능

## 8)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 **신재생 에너지:** 멕시코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재생 에너지 기술과 멕시코의 천연 자원을 결합해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
  - 한국은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 **환경 보호 프로젝트:** 멕시코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태계 복원 기술 및 환경 보호 정책 경험을 공유 가능
  -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 산림 복원, 오염 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
- **스마트 환경 관리:** 한국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멕시코의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 가능
  -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환경 정책에 반영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한국의 ICT 기술이 유용

## (한국-멕시코 간 주요 현안)

### 1) 경제 및 무역 관계

- **무역 및 투자:**
  - **무역:** 한국은 멕시코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 중 하나
  - **주요 수출품에는**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등이 있으며, 멕시코는 주로 원자재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

- 투자: 약 500개 한국기업들은 멕시코에 상당한 투자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기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 삼성, 기아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시설 운영

< 2018년 중남미 주요 국가별 무역 현황 >

(단위 : US\$천불, %)

| 순번 | 국가명   | 2018년 (12월) |       |           |       |            |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수지         |
| 1  | 멕시코   | 11,458,233  | 4.8   | 5,090,068 | 15.5  | 6,368,165  |
| 2  | 브라질   | 4,883,693   | -11.3 | 3,908,060 | 5.6   | 975,633    |
| 3  | 파나마   | 2,007,502   | 22.3  | 153,026   | 8.3   | 1,854,476  |
| 4  | 칠레    | 1,807,484   | 18.1  | 4,474,551 | 17.6  | -2,667,067 |
| 5  | 바하마   | 1,754,853   | 1.0   | 113       | 260.4 | 1,754,740  |
| 6  | 콜롬비아  | 1,011,626   | 24.3  | 834,392   | 28.1  | 177,234    |
| 7  | 페루    | 802,926     | -12.1 | 2,474,365 | 16.0  | -1,671,439 |
| 8  | 에콰도르  | 781,873     | 28.4  | 116,893   | -8.5  | 664,980    |
| 9  | 아르헨티나 | 536,361     | -35.9 | 405,944   | -33.7 | 130,417    |
| 10 | 코스타리카 | 134,920     | -19.9 | 206,915   | 48.6  | -71,995    |

○ 멕시코는 2018년 우리의 전세계 교역국 중

- 제10위 수출 대상국(115억불) (홍콩 포함시)
- 제15위 교역국(165억불)
- ※ 2019.1-8월 기준으로는 제10위의 수출 대상국(79억불), 제14위 교역국(116억불)

○ 멕시코는 2018년 우리의 중남미 교역국 중

- 제1위 수출 대상국
- 제1위 흑자 창출국
- ※ 2019.1-8월 기준으로는 대중남미 수출 비중 41.3%(1위), 흑자 비중 75.5%(1위) 기록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 자료원 : KITA 주 : 증가율은 전년 대비

## 한국-멕시코 관계가 중요한 이유: 한국의 멕시코 투자

<한국의 대멕시코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천불, 건, 신고금액 기준)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6월   |
|----|---------|-----------|---------|---------|---------|---------|---------|
| 금액 | 508,443 | 1,212,766 | 911,122 | 521,723 | 553,096 | 313,963 | 237,049 |
| 건수 | 54      | 96        | 245     | 191     | 147     | 144     | 55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 **자유무역협정:**
  -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FTA):** 한국과 멕시코는 FTA를 추진중으로 멕시코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
  -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검토가 2025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한-멕시코 FTA 협정은 더욱 진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
    - 기업 중 특히 철강제품 생산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
    - 농산물 분야는 한국에 수출 가능성을 보고 찬성 입장

## 2) 외교 및 정치 관계

- **외교 관계:**
  - **고위급 방문:** 한국과 멕시코는 정기적인 고위급 방문과 회의를 통해 외교 관계 강화
    - 양국은 서로의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차관보 차관 등 수시 방문)을 활용
  - **다자 외교:** 양국은 UN, G20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협력관계 유지
- **지방 정부 협력:**
  - **지방 정부 간 협력:** 한국과 멕시코의 지방 정부 간에도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경제적, 문화적 교류
    - 한국 시, 도 등과 자매결연 등 교류

## 3) 문화 교류

- **문화 교류:**
  - **한류의 확산:** 한국의 문화, 특히 K-pop, 영화, 드라마 등이 멕시코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
  - **문화 행사:** 양국은 상호 문화 행사 및 예술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증진

## 4) 환경 협력

- **환경 문제:**
  -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양국은 녹색환경기금(GCF) 회원국이며, UN 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보호문제 공동으로 대응
- **재해 대응:**
  - **재해 협력:** 양국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협력, 인도적 지원 등

## 5) 인프라 및 물류

- **인프라 및 교통:**
  - **인프라:**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
    - \*\* 삼성엔지니어링 2020.10.30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의 자회사를 통해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을 수주했다고 발표, 이 프로젝트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쪽으로 320km 떨어진 타바스코주 도스보카스 지역에 하루 34만배럴의 원유정제설비를 건설하는 사업
  - **항공 및 해운:**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 및 해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무역과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
    - \*\* 에어 멕시코 항공사 2024.8.1.부터 인천-멕시코시티 간 주 7회 운행 예정, 코로나 사태로 중단
    - \*\* 해운은 양국간의 무역 등을 위해 컨테이너 서비스 제공

#### 6) 범죄 및 마약 관련 국제 협력

- **범죄 및 마약 밀매:** 양국은 국제 범죄 및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

## 5. 칸쿤시 개요 및 경제 현황



### \* 칸쿤 호텔구역 전경

#### 1) 역사적 배경

- **설립:** 칸쿤은 1970년대에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관광 도시로 개발
  - 본래는 어촌에 불과했으나, 개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중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
- \* 칸쿤이라는 단어는 마야어로 “무지개 끝에 있는 배” 라는 의미(브리타니카 백과사전)
- **마야 문명:** 칸쿤 주변 지역은 마야 문명 유적지로 유명
  - 치첸이차(Chichen Itza), 툴룸(Tulum) 등 고대 마야 도시들이 칸쿤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소재

#### 2) 지리적 위치 및 기후

- **위치:** 칸쿤은 카리브해에 접한 멕시코 동부 해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키타나로오 주(Quintana Roo)에 위치
- **기후:**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연중 따뜻하며, 우기와 건기가 존재, 우기는 보통 5월에서 10월 사이로, 통상 태풍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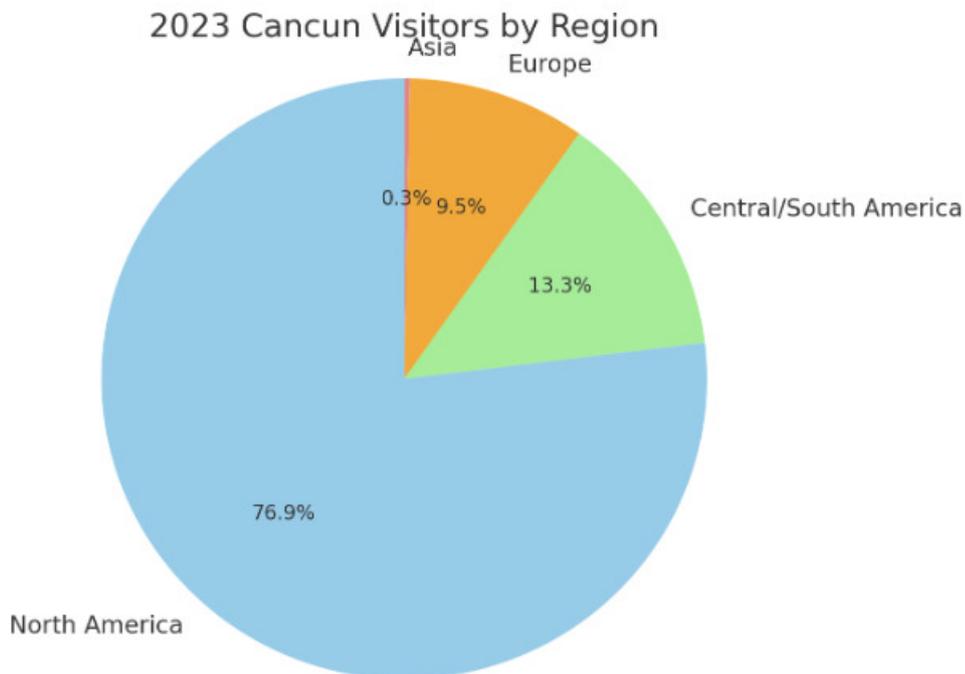
#### 3) 면적 및 인구

- 칸쿤시의 면적은 약 1,978.75 km<sup>2</sup>

- 칸쿤시가 단순한 도시 지역을 넘어 주로 해변과 자연 보호 구역 등 넓은 지역 포함 의미
- 2020년 기준, 칸쿤의 인구는 약 88만 명
  - 멕시코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주로 관광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인프라가 발달하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

#### 4) 경제

- 주요 산업: 칸쿤의 경제는 관광 산업이 주도, 대규모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상점들이 도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주요 관광객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방문
  - 전체 GDP의 약 80%가 관광 산업에서 발생
- 관광 수익: 2019년 기준으로, 칸쿤은 매년 약 600만 명이상의 관광객 방문(킨타나로오주는 약 1천5백만 방문, 2023년에 2.1천만명으로 증가), 이로 인한 관광수익이 약 30억달러 기록
  - 호텔 점유율: 칸쿤의 호텔 객실 수는 약 35,000개 이상, 주요 성수기에는 평균 80-90%의 높은 점유율 기록



\*\* 2023년 키타나오로 주 방문객수는 약 2.1천만명 규모로 이중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출신 관광객이 약 77% 차지

- 칸쿤 국제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
  - 2019년 기준 약 2,500만 명의 승객 이용
- 고용 구조: 칸쿤은 고용의 약 70% 이상이 관광 산업과 직접 연계
  - 호텔, 레스토랑, 교통, 관광 가이드 등 다양한 직종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
- 부동산 및 건설업: 최근 몇 년 동안 칸쿤에서는 부동산 개발 급증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관광 산업과 더불어 활성화 되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
- 무역 및 투자: 칸쿤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와의 무역이 활발, 외국인 투자도 지속 유입

#### 5) 문화 및 레저

- 레저 활동: 칸쿤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카약, 윈드 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가능
  - 이슬라 무헤레스(Isla Mujeres)와 코수멜(Cozumel)과 같은 인근 섬 관광과 연계 관광 활발
- 문화 관광: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인 치첸이차와 툴룸이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역사적, 문화적 경험 가능

#### 6) 인프라

- 칸쿤 국제공항: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항공편이 운행
- 숙박시설: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와 호텔들이 해변을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고급 휴양지로서 명성 유지

### 6. 칸쿤 시장 약력



○ **아나 파트리시아 페랄타(Ana Patricia Peralta de la Peña)**  
 \* 아나 파트리시아 페랄타 데 라 페냐 시장은 아버지 성인 Peralta와 어머니 성인 de la Peña 를 모두 사용. 페랄타 시장은 칸쿤 개발 초창기 역사에 있어서 선구자 중에 한 인물인 Diego de la Peralta 의 손녀로 칸쿤과의 강력한 가족유산이 존재함

- **생년월일:** 1990.6.24, 멕시코시티 출생
- **종교:** 카톨릭
- **교육:** 마이애미 대학 졸업(기업행정학 학사)  
2009-2012 키타나로오주 소재 다양한 호텔 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 자문역
- **경력:**  
2016.9-2018.8 키타나로오 주하원의원  
2018.9-2021.8 연방 하원의원(비례대표의원)  
2022.9 칸쿤시의 Mara Lezama 시장이 키타나로오 주지사에 입후보함에 따라 시장 취임  
2024.6 실시된 시장선거에서 여당 후보로 74% 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칸쿤 시장에 재당선
- **정당:**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당(MORENA)에 입당(2018), 이전에 멕시코 녹색환경당에서 활동(2011-2018)  
\* 환경 분야에 관심

**7. 한국과 칸쿤시간 협력 현황: 자매도시 및 협력관계 없음**

- 인천시 메리다시와 자매결연(멕시코 이민 출발지인 관계)
- 대전시 과달라하라시와 자매결연
- 서울시 멕시코시티와 자매결연
- 종로구 산미겔데 아얀데시와 자매결연
- 부산시 티후아나시와 자매결연
- 경기도 멕시코주와 자매결연
- 수원시 톨루카시와 자매결연
- 안양시 나우칼판시와 자매결연
- 충청북도 콜리마주와 자매결연
- 여주시 케레타로시와 자매결연
- 구미시 메히칼리시와 자매결연
- 경상남도 할리스코주와 자매결연
- 창원시 과달라하라시와 사포판시와 자매결연
- 서초구 멕시코주 콰우테묵시 자매결연

## 8. 칸쿤시와의 협력 분야 및 전망

칸쿤(Cancun)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특히 해양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

멕시코 중앙정부 차원에서 키타나로오 주의 집중육성 산업으로 관광, 농업, 재생 에너지, 식음료 및 서비스 등 포함

### 1) 해양 생태계 보호 관련 협력

- 칸쿤은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의 다양한 해양 생태계 보호 필요.
- 보호 구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호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어종 보호, 산호초 복원,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가능.
- 장기적으로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양 보호와 관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바, 해양 생태계 보호 관련 협력 가능
- **경남의 해양 생태 관광 사업과 연계 검토**

### 2)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

- **에코투어리즘 협력:**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광 형태인 에코투어리즘 강화 필요
- 예를 들어, 해양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연 친화적인 해변 리조트 개발을 촉진하는 등 에코투어리즘 협력 가능
- **친환경 인증제 도입 관련 협력:** 호텔, 리조트, 관광 시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환경 보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 가능
- **경남의 남해안 관광 동력 확보 사업과 연계 검토**
- **경남의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사업 연계 검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현 황 • 국정과제인 「해양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전국 5개소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해 개소당 1조원 이상 투자 계획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민자 8,000억원)

추진계획 • 통영·도남·한산도권역 중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기본구상, 발표자료 작성 등 해수부 공모 적극 대응 추진

### 3)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 및 연구 관련 협력

- 칸쿤 주변의 산호초는 관광과 해양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
-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생태계 회복을 촉진하는 연구 관련 협력 가능

#### 4)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협력

- 해양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해양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양 청소 프로그램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개선 관련 협력 가능
- 교육 프로그램 관련 협력: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가능

##### 해양쓰레기 제로 섬 시범 추진

관광객이 많은 중·소형 도서 중심 7개 섬\* 시범 지정으로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저감 모범 사례 도출

\* 창원 소쿠리섬, 통영 연대·만지도, 사천 신수도, 거제 내도, 고성 와도, 하동 대도

#### - 경남의 해양 환경 보존 사업과 연계 검토

#### 5)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 해양 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관련 협력 가능

#### 6)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도입 관련 협력

- 해양 관련 산업과 관광 업계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해양 교통 수단에 친환경 기술 도입 관련 협력 가능

#### 7) 국제 해양 환경 보호 협력

- 국제적 해양 환경 보호 네트워크에 참여 관련 협력 가능
- 한국의 해양 환경보호 사례를 참고하여 칸쿤의 해양 환경 관리 정책 개선에 협력 가능

#### 8) 마야 유적지와 연계 관광 등 관광 협력 가능:

- 칸쿤 인근 지역에 위치한 마야 유적지(예: 치첸이차, 톨툼)와의 연계 관광으로 해양 관광과 결합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 제공 가능
- 한국 관광지와 상호 방문 등 협력 가능

#### 9) 농업 관련 협력

- 멕시코는 약 800종 이상의 농축산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8위 식량 수출국
- 멕시코의 농축산업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위원회에서는 농기술이 발전된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모색

- **현지 농축산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밀농업 등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축산업 분야 기술 및 기자재 활용한 현지 진출 및 협력 가능**
- **경남의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사업과 연계 검토**
- **경남의 고부가가치 수산 인프라 조성 사업과 연계 검토**

## 9. 협력 방법(안)

### ○ 칸쿤시와 자매도시 사업 추진

- 한국내 자매도시 없음

### ○ 칸쿤시에 시장개척단 파견/ 칸쿤시 시장개척단 접수

### ○ 각종 상품 전시회 상호 소개 및 참석/참가 초청

### ○ 주한멕시코 대사관과 협조 관계 유지

### ○ 칸쿤시 단체/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MOU 체결

- **자연보존지역국가위원회(CONANAP) 칸쿤 사무소(Conanp**

Direccion Regional Península de Yucatan y Caribe Mexicano)와

해양 자원 보존관련 협력 MOU 검토 등

## 해운산업에 3조 경영안전판...‘한국형 칸쿤’ 복합관광도시 조성

### 해양수산물 새해 업무계획

김·참치 수출 2027년 45억불  
1천만불 수출기업 100개 육성  
자율운항선박에 1조3천억 투자  
해수부장관 “HMM 경영권 매각  
구체일정 난와 점진 협의중”

해양수산물가 해운산업의 저(低) 시  
황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펀드 1조원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해  
운 경영 안전판을 구축한다. 또 김과  
참치 등 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 규  
모도 오는 2027년까지 45억달러 수준  
으로 확대한다.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등  
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고 멕시코  
칸쿤과 같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  
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해운산업 3조원 규모 경영안전판  
구축**— 해운수출액 **확충**·해수부는 올  
해 해운산업의 시장 부진을 고려해 최  
대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해운사가 გადა보유한 선박  
을 할감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  
지하고자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마리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선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해운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  
해 현재 9300만 수송인 국제 해운사  
의 선복량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천  
만으로 30% 확충할 계획이다.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  
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투자를 촉진  
하고 국제선사인 HMM의 경영권 매  
각 타당성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해 “구  
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금  
융위원회,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가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해운시장의 분  
화·합성, 경제 상황, 증권 시장 등을 정  
확하며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된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인공섬  
신항과 광양항에는 오는 2026년까지  
자율의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배후지지는 2030년까지 여의  
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  
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  
류센터를 건립한다.

오는 2030년 741조원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모빌리티 산  
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 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개발에 오는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자  
한다.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인  
허가 특례, 실비인증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 **블루푸드 2027년 45억달러 수출**  
— 김·참치 등 **스타식품 육성**·수출  
형 수산식품을 육성해 재작년 28억  
달러인 수산식품 수출액을 올해 35  
억달러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45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이를 위해 김·참치 등 주요 수산  
식품을 ‘수출 10억불 스타식품’으로  
육성하고 김·전복·어묵·연어 등은

‘수출 1억불 클럽’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 또 수산식품 1000만달러 수출  
기업을 100개 키운다. 성장 사다리 바  
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천만원씩 제  
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에 6  
곳 조성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  
물 공급을 위한 필드체인(냉장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노후 위판장  
100곳에 지은, 친환경, 위성 기공 기능  
이 집약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묵 등의 상온유통  
식품이나 가정간편식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 **‘한국형 칸쿤’ 복합관광도시 조성**—  
‘K-마리나 루트’ 육성·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멕시코 칸쿤처럼 놀거  
리, 볼거리, 먹거리, 실거리 등을 단계  
별로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한다.

50개 섬 지역에 요트 정거장을 만  
드는 ‘K-마리나 루트’도 함께 조성  
한다.  
부산항 복합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은 마  
리나 시설·크루즈와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육성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 관광객을 올해  
1100만명에서 2027년 15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섬과 연안을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들고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시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등 소외도  
서(40개)를 살리고 섬 지역 태백 합중  
료를 지원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  
외된 소규모 어가 2만2000호와 어선  
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  
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  
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생  
활·안전 인프라도 개선한다.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플드타  
입 확보를 위해 재해 발생 30분 안에  
마리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을 먼  
바다와 연안에 구축하고 고위험 연안  
에는 재해 완충 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전해안 시  
범사업(2곳)도 한다. **출원 기자**

### 부산제일경제